

한석현

Han Seok Hyun

---



SUPER-NATURAL @ Nonbat gallery  
Mass products variable size 2010

**MUST BE FRESH!**

---



**MUST BE FRESH-!!!**  
Oil Marker on Plastic bag 78x116cm 2006



**MUST BE FRESH-!!**  
Acrylic on Polypropylene 114x184cm 2006



**FRESH Statue 신선상**  
Acrylic on Polypropylene, FRP Decoration column 37x30x230cm 2007



**Growing FRESH**  
Acrylic on polypropylene, plastic pot, plastic clover, polystyrene 70x60x320cm 2008



Installation view Walsh Gallery -Chicago



FRESH plant  
Acrylic on aluminum 122x244cm 2010

Oh! Holy Freshness

---



와상臥像 (Lie-down statue)  
acrylic on polypropylene, cushion 60x50x25cm 2008



**FRESH SAVES...**

Neon, pomex, wood 65x65x300cm 2008



**Holy FRESH!-trinity**  
acrylic on polypropylene, fluorescent lamp, plastic pot, plastic moss, lastic frame 200x120x220(h)cm 2009

# Freshness in Capitalism

---



**MUST BE FRESH presents**  
wood, screw, rope, polystyrene 6x6x3m 2008



Splash  
Acrylic paint, polystyrene dish, wood, motor, magnetic, orgel 60x52x100cm 2009



999.9 FINE FRESH  
Urethane gel Goldbar size 2009

Still Life

---







# Green Fetish

---



SUPER-NATURAL @ Aram art gallery  
Mass products variable size 2011



SUPER-NATURAL @ Nonbat gallery  
Mass products variable size 2010

## Green Fetish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린 페티시는 이상향적 가치를 반영하는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 녹색은 영원한 신선함의 의미가 되었고 이는 건강한 삶의 의미로 확장되며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삶의 가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위해 수집한 녹색 제품들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친환경적 재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녹색 제품을 진열장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의 녹색은 환경과 위생을 대표하는 표준색이 되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착하는 녹색에 대해서 수집이라는 과정과 나열을 통해 질문해 보고자 한다.

# Reverse-Rebirth project

---



Reverse-Rebirth project in New York  
Image cut 2012

## 한 석 현 Han Seok Hyun

이메일 : dhanb@naver.com

연락처 : 010-8935-7455

###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2001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010 '수퍼-네이처' (논발갤러리- 파주 헤이리)

2010 'Simply FRESH' (Walsh Gallery - Chicago)

2008 'FRESH SAVES...'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 부천)

2007 '오답의 쾌감' (175갤러리 - 서울)

### 단체전 요약

2011 'Being with you' (아트라운지 비하이브)

2011 '산수정경' (스페이스 몸 미술관- 청주시)

2011 '생각의 지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2011 '생활의 목적'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

2011 '공존을 위한 균형' (아람미술관- 고양시)

2011 'FOOD SOCIETY (대안공간 충청각)'

2010 'MONUMENTAL' (Walsh Gallery - Chicago)

2010 '일상의 행복-비타민' (알바로시자홀 - 안양)

2010 'Moment made by GREEN' (Nefspace - 서울)

2010 'Art Road 77' (헤이리 - 경기도)

2010 '강에 띄워 보낸 책"- Book Art 2010 Korea-Japan' (진선갤러리,

Gallery Yamaguchi Kunst-Bau Tokyo, Gallery Yamaguchi Kunst-Bau Osaka)

2010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SEOUL (Shilla Hotel)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 미술관)

2008 '중앙미술대전' (한가람 미술관)

2007 'Welcome' (Wolverhampton Art Gallery, UK)

2007 'Microflex' with Microweiv collective (비장소성 갤러리 1급정비소, 이문동 서울)

2007 'Service Station' (Walsh Gallery, Chicago, U.S.A)

2006 '민거나 말거나 박물관' (일민미술관)

2006 '남만은 짧다' (175갤러리)

### 수상 및 지원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전시지원

2008 제 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 데뷔 프로그램 부문

2001제11회 뉴프론티어 공모전 대상 (미술세계사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 레지던시

2011 경기창작센터 장기입주작가

## 작가노트

### MUST BE FRESH!

작업의 시작은 새롭고 신선한 것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술자리가 빈번하던 어느 날 놀람 도록 신선하고 생생하여 비(非)현실적인 물체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매일 접하다시피 하는 그저 '상추'였다. 하지만 그때 내게 보였던 것은 일상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특별한 촉촉함과 빛나는 광택과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위대한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너무나 신선해서 '가 짜'처럼 느껴졌던 그 상추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선함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짧은 생명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수많은 방법들을 상상해 보았다.

사회적 인식 안에서,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 오명을 받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신선함에 대한 대위적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확대된 크기의 상추를 재현하는 것으로 <Must Be Fresh>시리즈의 작업이 시작됐다. 커다란 비닐 위에 녹색 유성 펜으로 그려진 상추의 초상과 기성 제품의 비닐 봉투를 오려내고 잡아당겨 상추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2007년 175갤러리(인사동,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 '오답의 쾌감(Joy of Being wrong)'은 이 같은 작업들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 함으로써 생기는 생소함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나의 질문이기도 하였다.

첫 전시에 비하여 과장되고 상징화된 작품을 'FRESH SAVES'라는 두 번째 개인전(아트포럼 리, 부천, 2009)에서 선보였다. 종교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간단한 치환의 방식으로 송고의 장치들을 적용했던 이 전시는 2010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SIMPLY FRESH' 전(展)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Fine Fresh 999.9]는 그간의 상추를 형상화 하는 형식으로 국한되어 있던 서술적 태도에서 벗어나 '금괴'를 소재로 끌어들이 '신선함'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욕구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 SUPER-NATURE

2009년부터 이어온 최근의 작품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량 생산물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을 인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녹색운동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유패하지만은 않은 단편을 보여준다. 한국은 급격한 공업화를 통해서 이룩한 국가의 전형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그린시티, 에코산업, 녹색정치, 자연주의, 친환경운동 등을 홍보하며 'Green fetish'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운동과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 운동이 너무나 급격한 나머지 내용과 본질은 미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그 표면만 초록색으로 칠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퍼-네이처]시리즈 작업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초록색 상품들이 늘어가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 졌다.

최근 내 작품의 중심선은 '자연'과 '자연스러움'의 경계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힘이 있다. 재난 혹은 재해에 의해 특별한 원시의 자연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인간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연과 지금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풍경의 사이에서 내가 주목하는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원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가까이 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상 공원과 정원은 집을 짓고 터를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획되고 정해진 인간의 생산물이다. 어느 하나도 자연의 의도대로 구성되어지지 않는다.

[수퍼-네추럴]설치작품은 풍요로운 낙원의 이미지와 녹색 포장(Green washing)으로 도배되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을 교차시켜서 만들었다. 현대인들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둘러싸고 있는 인공적인 모습과, 상대적으로 자연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은 인공물인 '정원'의 형식을 취하여 가상의 인공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속에서 축발된 상상과 단편을 보여주고자 한다.

- 규격화에 대한 상상: 규격화와 대량생산은 규격미달의 것들을 버려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그러한 규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부정형의 것에 정형의 자를 들이댔으로써 조절하고자 한다. 그 단편으로 살아있는 나무에 씩여서 ISO 규격에 맞도록 사각형으로 자라게 만드는 역할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 재탄생(reuse→recycle→rebirth): 일상 생활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유리, 비닐 등 많은 현대적 기초재료 들은 재활용이 쉽지만, 자연재료에 가까운 나무들은 오히려 재활용이 힘들다. 다만 한국의 실정에 국한 될 지도 모르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소각된다. 이 작품은 그러한 폐기직전의 나무제품들을 모아서 거대한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 작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 개량 품종들에 대한 단편: 품종개량이라는 목적 하에 현재 개량되고 우수한 농산물은 거의 모두가 인공수정을 당하여 하나의 품종은 거의 아버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우량한 숫소 몇 마리가 한나라의 모든 소들의 아버지가 되고 있고 있는 사례는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지극히 인공적인 환경에서 제한되고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의 개량종들의 사례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농장 빌딩(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에 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계획을 통해서 인간이 개입해 조절되는 지금의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바라보고, 상상해 봄으로써 지금 시대의 단편들을 찾아 볼 계획이다.

### 정물의 파라다이스

언젠가 이미지 그 자체와 그것이 달고 있는 이름이 함께,  
 길다란 계열선을 따라 무한히 이동하는 상사에 의해,  
 탈-동일화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캠프, 캠프, 캠프, 캠프.  
 미셸 푸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89쪽, 민음사, 1995

#### 가치의 물화

무엇보다 한석현의 작업은 인공화 된 자연의 개념을 재현한다. 전시 제목 <수퍼-네이처 S uper-nature>의 수퍼는 '슈퍼마켓'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접두사 수퍼는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작위적 또는 가벼움을 뜻하는 superficial, 미신이란 의미의 superstition에 이르기까지 수퍼는 “-을 넘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nature”의 라틴어 어원 “natura”는 ‘탄생’ 또는 미술에서는 ‘나체’라는 의미로 그리스 고전미술의 덕목인 미메시스가 바랐던 이데아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지시한다. 영어에서 정물이 Still life인데 반해 불어로는 ‘Nature morte’, 즉 ‘죽은 자연’이란 의미다. 정물화란 자연이 가진 생명을 모방하는 것은 이미지로 고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물은 살아있음을 동경하는 죽음, 또는 생의 유희함에 대한 연민일 것이다. 고전주의의 회화란 인공이 자연을 뛰어넘는, 실재보다 더 실재에 가까운 자연의 시뮬라크르였다다는 점은 곧 고대인이 인식했던 세계관을 반증한다. 이처럼 18세기 후반까지 서구미술은 자연의 모방이란 전통을 유지해왔다. 자연을 이미지로 옮기는 정물, 또는 정물의 개념은 화가가 성취해야 할 기술적 덕목을 의미하며, 이런 태도는 한국미술교육의 틀의 원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화가가 아무 대상이나 모방하지는 않았다. 화가에게 주어진 의무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 의미 있는 대상만을 모방해야만 했다. 미술 비평가 줄리안 벨은 화가의 덕목 가운데 모방개념을 보충하는 ‘상상’(imagination)이나 ‘이데아’(idea)의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데아’는 천상과 연관되는 말이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란 인간의 마음보다는 신의 마음에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즉 고전주의가 원하는 모방의 사상 속엔 ‘이데아’를 좇는 인간본성의 욕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미술교육은 자연 그 자체보다는 모방의 전형이 되었던 거장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한다. 복제의 복제인 것이다. 모방의 개념은 실재와 가상을 분리하고 시간을 고정하려는 기념비적 이념을 추구했다. 하지만 18세기 말에 이르러 화가의 창의적 시점이 개입되면서부터 자연의 적합한 재현이 기술적인 세밀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대정신은 예술의 주요한 가치로 등장했다. 고전주의 사상은 쇠락하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상은 20세기 이후 전지구적 삶의 기초가 되었다. 20세기 미술은 고전적 환영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에 의해 펼쳐진 물신주의를 미술의 문맥으로 개입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포스터는 <실재의 귀환>에서 정신분석학과 자본주의의 개념이 접목된 70년대 미국미술을 ‘외상적 리얼리즘’의 시대로 정의 내린다. 전후 미술이 갖는 특성들, 기계와 상품이란 현대의 신화가 펼친 인공적 세계를 일종의 ‘정후’로 변역한 “외상적 리얼리즘”은 허구와 실재 사이의 위상이 허물어졌음을 주목한다. 이제 실재는 허구화 된 이미지로 재현되고 어쩌면 실재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이야말로 집단화된 현대의 외상일지도 모른다. 실재는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파생 실재가 우리 삶을 채운다는 보드리야르 식의 디스토피아 개념이 현대미술에 의해 극명하게 재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품에서 파생된 기표는 실재를 반영하는 이미지의 허울이 되고, 상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닌 시각적 가치에 의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미지의 원형이 되었다

이런 동시대 미술의 기호학적 속성은 이제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한석현은 서구적 경향에서 기인한 상품주의 미술과는 달리 한국의 동시대성을 상품의 가치를 ‘신선함’이란 추상적 가치에서 발견한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고전적 의미의 정물화의 개념과 현대소비주의의 특성이 만나는 경계면을 주목하는 점은 그만의 독특한 시선이다. 특히 신선함이 생명인 ‘상추’라는 대상을 물신화하면서 온도조절시스템에 의해 (한시적으로) 보존되는 슈퍼마켓의 신선채소를 동시대의 정후로 바라본다. 그가 제시하는 ‘상추’는 소비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을 대변한다. 그것은 신선함에 부여된 가치인데, 이는 저장기술의 발전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인위적으로 신선함이란 한시적 시간성을 보다 길게 연장시킨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냉장 진열대는 일종의 통제에 의한 자연의 사원이 된다. 그리고 이 사원은 쇼핑에 의해 작동하고 현대인은 쇼핑에 의해 정체성을 과시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현대의 소비성을 존재를 위한 절대적 가치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소비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달리고 있는 이 특별한 경주의 원형은 쇼핑행위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쇼핑은 상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길거리, 학교, 회사, 휴양지까지 연장된다. 현대인의 쇼핑은 상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번 전시 <수퍼-네이처>는 특이하게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갤러리 (논 갤러리-밭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논 갤러리에서는 2009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개인전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꾸준히 탐구하던 신선함의 가치라는 개념을 물질화시키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석현은 플라스틱, 비닐, 아크릴 물감, 알루미늄에서 우레탄에 이르는 다양한 질료를 이용해 신선한 상추의 이미지를 재현한다. 삼면화를 차용한 “Holy FRESH!- trinity”(2009)는 사원의 신전에 봉양된 상추화본은 원형의 형광등으로 장식된 빛으로 르네상스적 종교화를 희화화하고 화려한 금빛 액자로 만들어진 제단과 장식들은 교회의 권위를 키치적으로 교란시킨다. 신선함을 신성함으로 둔갑시킨 것은 뒤상적인 위트가 느껴진다. “S plash” (2009)는 자동장치의 원형인 오르골 구조를 이용해 만든 구조물로 신선함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기계장치의 은유로 볼 수 있다. 이 구조물 맨 위에 놓인 일회용 접시 위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만든 상추 한 장이 자기장의 힘에 의해 마치 살아있는 식물처럼 꿈틀대고 있다. 갤러리와 분리된 작은 방에는 우레탄을 이용해 만든 녹색의 금괴(999.9 FINE FRESH, 2009)가 쌓여있다. 신선함의 가치는 정제되고 압축되어 기호학적 형태와 부피,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자본밖에는 없는 것일까? 그가 물질화 한 녹색 금괴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대신하는 색채가 아니다. 녹색은 ‘정치화된 색’, ‘색의 정치학’의 첨병인 셈이다.

#### 그린 페티시

녹색혁명엔 세계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제 환경은 정치 경제 문화만큼 중요한 가치이며 현대의 녹색은 위생, 안전, 자연주의, 친환경 등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었다. 트렌드는 패션에만 머물지 않는다. 즉 개념적, 이념적 가치와 같은 비물질적 사상까지도 슈퍼자본주의는 물신화한다. 그 중에서도 녹색은 가장 ‘핫’한 ‘잇 컬러’가 된다. 밭 갤러리의 설치작업 “수퍼-네추럴 Super-natural”(2010)은 중국의 정경 문화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다. 중국의 정원은 시와 회화를 실제 자연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가산(假山)의 원리는 본재를 하듯 산수화를 실제에 옮기는 것, 다시 말해 인공적으로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이데아 사상과 유사하게 중국 조경은 도교사상이 녹아 있는 신선(神仙)의 땅을 재현한다. 다시금 자연의 모방은 이상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상은 형상학적 태도로 발전했다. 여기에서의 형태 즉 꼴은 운명이자 삶의 덕목을 지시한다. 아름다운 산의 진경을 인공적으로 모방한 인공 정원의 가산은 드높은 이상향, 즉 가치의 소유에 관한 문화적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오늘날의 녹색혁명과 같이 현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그린 페티시 또한 이상과 가치를 반영하는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 녹색은 영원한 신선함의 의미가 되었고 이는 건강한 삶의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의 가치로 확대될 수 있다. 오늘날 페티시는 인간본성의 불가해한 성적 욕망을 통한 권력구조의 비유에 머물지 않고 발전과 자기계발 더 나아가 삶의 형태를 통한 정체성 구축으로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한석현은 소비의 일상에 퍼져있는 녹색을 수집한다. 녹색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녹색 상품이 언제나 친환경적 재료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주병, 주방세제, 인조잔디, 병따개, 플라스틱 화분, 파리채에서 플라스틱 빗자루에 이르는 이질적인 녹색상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열장을 메우고 있는 현실이 알려주듯, 현대의 녹색은 건강과 위생을 대표하는 표준색이 되었다. (초등학교 주변에 Green food zone-어린이식품안전지대-를 생각해보자.) 소비심리와 색채심리의 관계를 떠나 색채의 정치학은 이처럼 현대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온갖 녹색 상품으로 '조경'한 플라스틱 가산(假山)은 명나라 시대의 이상이 담긴 모형 산, 즉 복제된 자연을 다시 복제한 상상(similitude) 이미지다. 비로소 상추는 대상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상추-녹색-신선함-이상이란 계열로 이동하면서 상추를 벗어나 그의 본질적 질문인 (사회를 구성하고 인도하는) "가치란 무엇인가?"로 되돌아간다. 녹색의 정치학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귀농 현상과 같이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이상을 찾으려는 시도, 도교적 가치관을 비롯해 땅에 대한 지나친 자본적 가치)마저 어찌면 그린 페티시의 배후가 된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되물게 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리즘이란 가치에 빠진 문화예술계의 흐름이 점점 표준화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작가 한석현이 세계주의 미술이 제시하는 보편성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소비행태를 통해 지역과 세계 사이를 횡단하는 동시대의 가치를 질문하는 젊은 미술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정현 (미술비평)